

1967年 10月 4日 公보부등록 라-932

성도의 벗 10



영 감 의 멧 세 지

리차드 엘. 이반스
(십이사도 정원회)

젊은이를 상대로, 아니 전 인류를 상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원, 우월성, 승영에 이르는 데에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든가 자신에 대한 존경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어떻고, 장소가 어디고 간에 절대로 삶을 허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의 전부가 바로 그것 하나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며 준비하고 존경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경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게으르기를 그치라. 부정을 금하라...」(교성 88 : 124)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합당한 삶을 영위하며 무엇인가 달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양심에 거북한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담하여 자포자기할 때가 아닙니다. 배워서 알아야 하는 시기이며, 행하는 가운데 발전을 약속하며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이 곳에 있어서의 삶은 지극히 짧지만 영원이란 끝 없이 긴 것입니다. 연령의 노소를 막론하고 열의를 가졌거나 성급한 사람이거나 염오에 빠져 있거나 갈 길을 잃었다고 의기쇠침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사하며 일하며 발전하며 회개하며 정복하며 극복하는 매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스러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확신으로 용기와 위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시작에는 늦었다는 표현이 적합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치도 못하는 계명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4 권 제 10 호 순 서 1968년 10월호

권두언 : 인생의 진가 대관장 데이비드 오. 백케이	1
할아버지의 유산 에브리 워터	2
감독의 직분 빅터 엘. 부라운	3
종교와 사회적 책임 로웰 엘. 벤슨	5
인구 폭발 스펜서 더블유. 김블	7
성경이 문화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 로버트 제이. 마태	8
물문경의 편집자, 저작자, 장군,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물문 마리온 디. 행크스	10
물문 유모어	11
관리 감독단 페이지 : 부모님에게 드리는 말씀 존 에이취. 반덴빅	13
상호 부조회 : 어떤 각성 린다 헛트	14
망각이란 마술 실비아 프로브스트 영	15
주일학교 : 가르친다는 것은 말하는 것 이상의 것 라이먼 씨. 베레트	16
청소년 편 :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메리 켈워드	18
정련소의 불 마리온 벤치	19
계보 : 영의 세계	21
늙은 어부 마리 바텔스	23
선교부장 멧세지 서 현보	24
내외소식	25

어린이 성도의 벗

<연속 탐정소설> 나비단의 비밀. 공작동산.
그때로가 좋아, 피터를 위한 할머니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8년 10월 1일
(통권 제 39 호)

발행인 : 배 일 문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 호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 가 : 50원

1년 구독료 (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이달의표지 : 이달 표지의 주인공은 위대한 선지자요, 전사인 물문의 얼굴이다. 이것은 거룩한 니파이인의 기록을 간추리고 있는 장면의 일부분이다. 이 그림은 코네티컷 주 이스트 놀워크에 사는 미국의 유명한 화가 톰 로벨의 작품이다. 로벨씨는 1967년에 그림 의뢰를 받고 금년 2월 완성시켰다.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인생의 진가

138차 일반총회의 폐회사를 권두언으로 실습니다.

저는 교회의 여러 회원에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며, 내부에 잠든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일에 몰두하며, 인생에 있어서의 진실한 것을 추구하며, 멸망을 자초하는 헛된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본 대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주신 말씀, 즉 우리 주변을 파고드는 수 많은 유혹을 완강히 물리쳐야 한다는 권고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만일 교회의 회원 여러분이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생활에 직접 적용만 하신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진 미약한 빛이 아닌 산위 높은 곳에 세워져 못 사람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같이 귀중한 권고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리와 성약에 담겨져 있는 말에 쫓아 현대 계시를 보다 열심히 연구하는 시간에 인식하지 않다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이룩된 위대한 위업에 감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말은 흔히 듣는 바이고 또한 사실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의 개인 생활과 가

정생활에 또는 사회생활에 얼마나 잘 적용했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것을 과학적인 혹은 인간의 운명이라는 면에서 다루어 보면 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할 특권을 갖게 해주신 고마움에 회의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를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 목적을 안겨주고 마음속에 용기를 심어주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상한 동기로 전파된 복음, 그리하여 심지어는 적의 관심이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혹은 위대한 교사로, 혹은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믿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사회 및 세상의 병폐를 없이하는 데 효력을 발생치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날의 세상 특히 현재를 사는 우리들 주변의 심각한 상태를 감안할 때—갈릴리 출신의 예수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는데서 그치는 미미한 태도를 탈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그를 우리의 주, 구세주인 성스러운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마 16:16)이라고 말할 때 경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연구, 신앙, 기도로 진리를 얻으라는 권고와 「유덕하고 사랑할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만한 일이 있으면」(신앙개조 제13조)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절대 변하지도 않으며 모든 인간의 행복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학교나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나 교회의 역원은 시온의 젊은이에게 인생의 원리나 구원을 좀더 열심히 진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울러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인생의 형성기에 알맞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성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에게 신권에 의한 행정에 관련하여 비록 간단하지마는 강한 힘을 나타내는 현대 계시와 한층 더 가깝게 지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찬상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교리와 성약 121:41~43)

이와같은 말씀은 비단 신권 정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

정생활에서,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치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꼭 간직해야 될 훌륭한 권고요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정박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저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따라 살고 또한 이를 절실하게 느낄 때, 신권을, 가정을, 이웃을 좋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한 감정을 맛보게 될 것이며, 사실 이러한 과정이나 방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특별한 기회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매일의 생활에 좋은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사회단체에서, 정치 활동에서, 실로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복음을 대표하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불상사로 슬픔을 당하고 있는 많은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자유와 인간 본유의 권리수호에 송고한 피를 흘리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충성심에 가득찬 그들이 먼 거리를 걸어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저의 가슴은 고마움과 감사로 벅칩니다.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전쟁의 공포, 유혹 및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생각이나 실망으로 몸부림쳐야 할 때 위안을 안겨다 줍니다. 도덕적으로 자신을 깨끗이 지켜 봉사의 대열에 참여하겠다는 결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용기를 주어 말은 바 책임을 완수하게 해 줍니다. 병고에 시달리거나 부상당했을 때의 희망이 되어 줍니다. 불가능한 어떤 것과 마주칠 때에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하여 자기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평온한 확신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군에 복무하는 여러 형제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이해를 구하여 자녀를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함없고 때묻지 않은 상태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은 종교 교육이며 자녀의 개성 발전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그 밖의 여러분 한분한분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를 향하여 모든 것의 향상을 추구하며 인생의 영적인 가치를 절실하게 느껴야만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원하는 바, 희망하는 바를 알고 계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 알고 행할 때 그는 도와줍니다. 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한 모든 축복이 같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적절한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아멘.

할 아버지의 유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분은 내게 얼마간의 돈을 남겨 주셨다. 그 돈은 물론 쓸모있게 쓰였겠지만 어디에 쓰였던가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한다. 단지 그것이 가족기금에 보태어지고 필요한데 쓰였다는 것만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고안에 있던 결봉에 나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정성스런 달필로 쓴 그 편지속에는 그 분의 삶의 철학이 적혀 있었다. 그 철학은 나의 생애에 따듯하고도 지도적인 영향을 끼쳐 왔었다.

그 분의 서한 속에 점철된 것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교회가 너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은 네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좋은 척도가 된다.

기독교인이여, 누군가 네게 너의 최선의 날이 언제였던가 묻거든 「나의 내세」라고 말하라. 너희는 찬송가를 남에게로 던져 주는 불손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작은 친절로 그리스도의 이상을 구현할 수도 있다. 너의 교회활동에 있어 좋은 모임이란 어느 한 사람이 이끄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어느 누구도 독점하지 않는 모임임을 기억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이다. 예수와 같이 되는 최선의 길은 그의 정신을 받들고 그를 따르는 것이다. 바울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한가지 일」이라고 말한 까닭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기독교의 일을 현명하게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치고, 위원회의 회장의 직을 맡고, 헌금을 모으고—이런 것이 「한가지 일」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의 「한 가지 일」은 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처럼 복잡한 것이다. 그것도 성가, 조용한 대화, 기도, 노래, 편지쓰는 것, 토론, 여행, 조직, 쇄사슬, 조소, 비난, 찬송을 포함하고 있다. 너도 알다시피 이것은 게으른 사람들이 인용하기에 알맞은 것이 아니다. 의무를 미룬다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힘을 미루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브린 위터—

감독의 직분

빅터 엘. 부라운
(관리 감독단)



제가 감독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감독의 책임에 관하여 그리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 회원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적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독은 교회의 어느 누구의 직책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또 실제로 그래야만 합니다. 감독이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일진대 우리 또한 그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간을 빌려 감독을 조금 더 회원의 결으로, 여러회원을 감독의 결으로 가까이 가게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독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그의 직책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책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만 지면이 제약되어 있고 하니 그 중 몇 가지만 골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독의 세상적인 책임의 두가지 즉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과 재정을 관리하는 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지 사업 계획을 통하여 교회는 회원을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감독은 이 복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 분만이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를 결정할 수 있고 어떠한 형태로 도울 것이며, 상호 부조회장의 협조아래 어느 정도로 도울 것인가를 정하는 분입니다.

물론 감독은 이 직분을 사랑과 친절과 이해의 정신으로 수행합니다.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도움을 받는 그들에게 전에 가지고 있던 자존심과 위엄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계획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데는 역시 일정한 원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교회 회원으로서의 그들에게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독립심을 갖게 해준다는 이념에 입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처지에 당면하더라도 일년 동안을 충당할 수 있는 물자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심한 사고나 질병에 당면하여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는 경우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어려움을 해결치 못할 때는 감독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면밀한 개인적인 조사를 마친 후에 감독은 교회가 꼭 도와주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때라도 직접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돕는데서 그칩니다. 그들 가족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에 한합니다. 일처리를 잘못 다스림으로 야기되는 재정의 곤란은 감독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받은 도움에 대한 댓가로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를 설정하게 된 동기는 도움받는 사람이 자기는 도움이나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자존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아무 부담없이 주는 것이 훨씬 수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그대로 받는 것을 하나의 약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는 이 계획으로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를 유약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 이외에도 금식 헌금, 복지 계획, 예산, 또는 감독의 창고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감독이 원하는 요구에 응해야 하며 그가 복지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탁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이 복지 계획이 아주 한정된 한도 내에서 수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세워진 시책안에서 감독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은 와드 내의 행사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와드 회원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감독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난점의 하나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집회장소, 유지비의 일부, 보조 조직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금을 모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와드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감독의 협조에 호응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을 잘 바치면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독이 모은 모든 기금은 다 성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전혀 자유의지에 의한 헌금임을 감독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협조하겠다는 성도들의 열의는 감독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은 세상적인 직무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영적인 책임을 놓고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지시된 대로 감독은 제사 정원회의 회장임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감독과 그의 보좌들은

와드 내의 아론 신권 회장단을 구성합니다. 젊은 남녀에 관한 제반사를 해결하는 주춧돌입니다. 그는 보좌와 가정 복음 교사, 전체서기, 고문, 보조 조직 역원 및 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중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젊은이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독은 하늘 아버지의 영감으로 부름을 받아 여러분의 영적인 상담자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축복 즉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찾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가 완전히 회개했을 때에야 비로소 행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심판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감독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옳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경전에 기록되기를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켤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이 권능은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니, 이 또한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

(교성 121 : 36~37)

감독은 그 정도와 분량이 어땠든 죄에는 강한 분입니다. 동시에 그는 죄인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를 너무도 잘 아는지라 도움을 주고 싶어하며 특히 사태가 어려울 때 도와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여러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감독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은 언제나 성스러운 신뢰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감독의 축복을 받아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분과 가까이 지내보십시오.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도움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감싸주는 책임입니다. 감독은 관리 대제사로서 와드 회원의 영의 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 감독의 책임은 우산을 넓게 펴서 모든 사람을 덮어 주는 것과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협조를 아끼지 않는 협력자가 많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입니다. 이것은 신권 소유자의 책임이고 이 책임에 헌신적으로 종사할 때 감독의 노고를 덜어주게 됩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말로 진정한 조력자라고 하겠습니까. 가족과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어떤 감독은 자기가 이제까지 받아온 찬사 중에서 가족이 아플 때 제일 처음으로 가정 복음 교사를 방문케 해준대 대한 감사였다 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벅케이 대관장님께서서는 만일

가정 복음 교사가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어떤 가정에 초상이 생기는 경우 제일 먼저 알려야 될 사람은 감독이 아니라 가정 복음 교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숙지하고 그리하여 감독의 협조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드의 아버지로서 그는 이 외에도 많은 협조자가 있습니다. 와드의 역원과 교사가 그를 돕고 있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직책에 응할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이 감독이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웃에 사는 분, 절친한 친구의 아들, 몇 년전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소란을 피우던 소년일지도 모릅니다. 내쫓아 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대개가 남편이며, 생활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싸야하는 분입니다. 인간적인 결점이나 약점도 있으며,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성격의 소유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인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부름으로 특별한 축복을 갖고 있는 특별한 인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찌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찌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디모데전서 3 : 2~6)

감독이 이 직책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자원자도 아닙니다. 이 부름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 만큼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고저 하는 신앙과 소망을 안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나 자녀들도 그와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며 즐거운 저녁 시간에 전화 오기가 일수이며 심지어는 새벽 3시에도 받아야 하는 그를 위로해 주며,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이룩해야 될 책임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 훌륭하고 헌신적인 감독, 그의 부인, 자녀의 머리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와드의 회원인 우리는 그가 비록 어리다 하더라도 그분의 지도력에 좇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살피도록 부름을 받은 종을 지지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들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우리를 보살피는 영감으로 하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중드리면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종교와 사회적 책임

로웰 엘. 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가? (미가 6:6)

여호와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고? (시편 24:3)

이것은 예언자, 시편작자 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경전 안에서 되풀이 질문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그 대답은 단순 하지가 않아서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각기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해답자들은 스스로의 답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전 한 귀절씩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답이 무엇이던 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라고 한 근본적인 의문은 누구에게나 남아 있을 것이다. 종교생활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종교생활의 차원

스스로를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신념과 감정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확신과 확고한 생활관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들이 생활하는 종교의 전형적인 발로와 생활형식과 사상—그때문에 스스로를 종교적이라고 확신하는—을 캐어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자신의 종교를 사는 사람들을 다섯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은 이 다섯가지의 혼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하나하나를 평가하지 말고 여기 모두 제시해 보기로 하자.

1) 어떤 사람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말일성도는 복음의 회복, 신앙으로 이끄는 살아있는 예언자의 신성한 인도, 또 그 분의 가르침에서 비롯한 특별한 교리등을 믿는다. 신념도 종교생활에 있어 초석과 같은 것이다.

2)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종교생활을 스스로의 신념에 대한 지식이나 논리와 동일시하려 한다. 선교사로 일할 때 그런 사람도 경전을 배우고 경전을 익히면서 스스로가 종교적이라고 느낀다. 교리를 안다는 것은 스스로의 종교적임을 확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3) 셋째는 교회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는 말일성도에게 있어서는 행하기 어렵잖은 일이면서 또 크게 보상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복음의 은사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알려져 있는 기구를 통해서 손, 마음, 정신, 영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4) 종교적이 되는 넷째번이자 특색있는 방법은 신회—하나님, 독생자, 성령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삶의 영적 차원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때에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 겸손, 경외, 존경, 숭앙, 신임, 사랑을 느낀다. 이러한 여러 감정은 시편에 잘 묘사 되어 있다.

여호와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1)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하늘에서는 주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 25, 26)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찌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찌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7~10)

5) 종교의 다섯번째 범주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엿볼 수 있다. 즉 기독교에서는 의와 은혜를 실행하므로써 합당한 종교생활을 구현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 7:12)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 1:27)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 22:39)

종교생활의 평가

종교적이 되는 이 다섯가지 방법은 실행이 가능한 것이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은 인생에 동기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연구하는 것은 관심을 높이고 깊은 의미를 준다. 교회생활을 하므로써 믿는 사람은 복음의 인도, 은사, 축복을 받으며 이웃에게 힘을 준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친절은 종교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종교생활을 크게 요약하면 종교적이 되는 마지막 두가지 방법이 특별히 강조된다. 예를 들면 십계명 중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

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하는 질문에 대한 미가의 대답은 두배나 강조적인 것이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8)

예수도 같은 뜻으로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 22:36~40)

이 말씀으로 보아 종교에 대한 신념이나 지식과 교회생활에의 참여는 그것으로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을 실생활에 유효하게 행하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야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가 하나님은 한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야콥 2:19)

그리고 바울은 사랑없는 지식의 한계를 알고 있었으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린도전 13:2, 12, 13)

예언이 있는 종교는 그 창시자에게 이웃의 복리를 위한 계시를 전하는 데서 시작된다. 타오르는 덩불 앞에 서서 모세는 자신이 성스러운 땅 위에서 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는 유혹에 저항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하면서 사십일을 황야에서 지내신 뒤 「선을 행하려 두루 다니셨다.」 예수와 대결한 것이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심경을 변화시키게 했고 기독교인이 되어 이교인에게 전도하게 하였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과 독생자를 보므로써 「인간의 불멸과 영생」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복음의 회복에 헌신했다. 종교란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예언자로 하여금 인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한다.

종교는 관습화하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로 인하여 흔히 그 뜻이 흐려지기도 한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순수한 관심은 조직에 관한 사항과 제반 의식과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신은 그 천성이 도의적이며 완전과 연민의 존재이다. 누구든 스스로 이웃과의 유대를 유지함에 있어 완전과 자비

를 실천하지 않으면 이러한 존재를 섬길 수는 없을 것이다.

미가와 같은 예언자나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염려해주시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도 염려하신다—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욕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은 없다. 이 근본적인 가르침은 경전 속에 되풀이되어 나온다. 앰울렉크는 개인적 복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사람들을 고무시킨 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너희가 이 모두를 행한 뒤에도 궁핍하고 험벗은 자를 의면하며」(애말34:28)

현대에 적용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그것을 응용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던 마음속 깊이 괴로움을 받거나 또는 감동을 받는 사람은 없다. 이와 같은 경전상의 금지가 현대의 관용어로 풀이 되었을 때는 변호와 난점이 따를 것이다.

「(추상적으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기는 꽤 쉽다. 끈란은 우리가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했을 때 생긴다.」

이십세기에 사회는 급격하게 복잡해 되었다. 많은 문제는 간단하거나 명백하지가 않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 전시대의 법칙에 따라 살거나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주는 단순성만으로는 살 수 없게 되었다. 사회의 허다한 문제는 간단한 대인관계를 토대로 한 보다 이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금을 통해 강조되어 온 기본은 근본적인 철학이며 여전히 그것은 유효적절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웃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그 방법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명령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을 비판하려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덕에 오르려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제시함으로써 이 글을 끝맺으려 한다. 우리는—옛날 이스라엘인이 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집에서나 예배당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시장, 학교, 고속도로, 골목길 등에서 타인의 생활에 미치는 우리의 행동을 무시할 수는 없읍니다.

현대생활은 차점도록 비인간적인 경향을 보인다. 인간은 친근한 울타리 밖에서는 우리의 목적의 수단, 우리의 이익을 부합시키는 단순한 방법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어쩌면 통계된 실업자, 고속도로에서 죽은 사람들, 대학에 나가는 학생, 심지어는 교회에서 침례받은 회원일런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이 비인간화의 시대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편여를 몇 가지 생각해보자.

정직과 공명정대

대회사, 슈퍼마켓, 큰 길가에 있는 주유소, 정부와의 대대적인 청부계약 등에서 상징되는 비인간적인 사무 관계의 시대에서는, 타인에 대해 부정직하고 무관심하려는 유

혹이 허다하게 많다. 사람들은 여행객을 속이고 정부에게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하겠지만 이웃에게서 훔친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 자동차의 속도계를 다시 팔목적으로 바꾸고, 원천징수를 위한 영수증은 얼버무려 버리며, 상품에는 턱없이 비싼 정찰을 붙이거나 특가 매매출이라는 형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지불하는 값의 고풍에 따라 자동차가 잘 못가고 한다. 교사, 변호사, 의사들은 그들의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유혹을 받는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종교적 원칙을 더 굳건히 해서 사무적이거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것을 엄밀히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큰 사회에의 참여

활동과 지도자 양성의 계획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교회는 활동적인 회원의 여가를 선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어떤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보다 더 낮게 봉사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또한 보다 큰 사회 즉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시민이기도 하다. 말일성도는 그들의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다 큰 사회에서도 책임성있는 시민이 될 필요가 있다.

사회의 각층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토의 연구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적극적인 시민생활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도시에는 수많은 사회적인 기관, 예를 들면 정신 건강 센터, 가족 봉사, 사회 봉사 기관 등이 있는데 이는 「뿌리가 박힌」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건강이나 개인적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성인 말일성도는 교회에 봉사해야 하지만 자가 속해 있고 지역사회에 훌륭한 봉사를 해야 한다.

인 권

오늘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작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공산주의보다 더 큰 모든 인종, 문화 사회를 초월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스스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깨닫는 것이다. 인간은 경제적, 정치적, 종교, 인종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이웃을 압박하고 무시한 길고도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지구의 같은 창조주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과 꼭 같이 이들도 사랑하신다. 우리도 그것을 본 받아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식량, 의복, 집, 사랑, 자존심과 창조적인 자기발현의 필요를 다 같이 가지고 있다. 물론경을 보면,

「너희 형제 생각하기를 네몸 같이 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인이 하나같이 귀하며…」
(야곱 2 : 17, 21)

「…주는 인간들 가운데 선을 행하심이라… 만인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겹거나 회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이거나를 부인치 아니하시고 이교도까지라도 기억하시리니, 유래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모두 하나님 앞에는 동일함이라.…」(니파이이서 26 : 33)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형제애는 복음 및 생활의 가장 기본적 율법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안에서의 위치가 어떤 것이던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과 정의를 배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행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인 구 폭 발

스펜서 더블유. 킴볼 (12사도)

1968년 예언자께서 십이사도, 칠십인, 수많은 장노와 자매들을 세상에 내어보내 복음을 가르치게 했을 때 지구에는 32억5천만의 인구가 있었다. 이는 18세기전 최초의 위임이 주어졌을 때보다 약 13배나 되는 숫자이다. 모세가 애굽인의 굴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켰을 때는 전세계에 단지 2500만의 사람이 살았다고 추정되고 있다. 예수 탄생시는 2억5000만, 십자군이 진군했을 때, 클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넌 때, 그리고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에 닿았을 때는 5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6세기 동안 전쟁, 질병, 기근등으로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는 저해되었던 것이다.

1830년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지상에는 10억의 인구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백년후 우리들이 백주년기념일을 가졌을 때는 다시 10억이 불었고 31년뒤는 다시 10억이 불었으며 14년이 지난뒤는 다시 10억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을 동안에 지상에는 70억의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다음 세기에는 420억 내지는 450억의 인구가 지상에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구폭발이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기 전에 무슨 수단을 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의 비율이 언제나 고무적이었으므로 실망하지 않는다. 1830년 4월 6일 말일성도는 1억 6천 6백 만명에 한사람이었다. 1840년에는 35,000명에 한사람, 1920년에는 3400명에 한 사람, 1955년에는 약 1800명에 한사람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1,500명마다 한사람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것이다. 우리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성경이 문화와 정신에

스트워드 로빈슨은 그의 저서 「가족 씨클」에서 성경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베스트 셀러이다. 그것은 우리들 대부분이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책이다. 더구나 자만심이라는 북병에서 한번 벗어나면 우리가 무리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겸손케 해준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판인 동시에 제일 싼 책이기도 하다. 그것은 큰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값있는 것으로 보호받고 있으면서도 사사로이 우리 가정에 그것을 간직하기도 한다. 그것은 수정같이 맑으면서 동시에 가장 신비스런 책의 하나이다.」

성경은 「책」 「좋은 책」 「책중의 책」이라고 불리워왔다.

성경이 인류전체에게 끼친 영향을 가늠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특히 서양문명에 끼친 영향의 정도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정신 세계와 문화는 정확 세밀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수천년 동안 수개 대륙의 남녀들의 사상과 행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영향은 우리의 언어, 문학, 예술, 음악, 법전, 기구, 조직, 관습, 그리고 매너리즘, 심지어는 몇몇 오락형태에서도 확실히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발행한 1961년 3월용의 지부교육 멧세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성경은 이제까지 발행된 어떤 서적보다도 커다란 영향을 인류에게 끼쳤다. 그것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모든 나라에 공헌하고 있다. 성경은 인간이 마음으로 바라는 최고 열망을 만족시켜주고 있다. 그것은 신의 존재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

「오늘날의 기독교와 서양문명은 모두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

「광범위한 영향은 주로 인간 자신에 끼친 것이다. 문화와 정수의 최고 이상은 이 책이 그 원천이다. 가장 위대한 미술가, 작곡가들은 성경의 인물과 주제를 대생했을 때, 그들의 창조력의 최고봉에 도달했던 것이다. 성경은 여태껏 쓰여진 어떤 책보다도 더 크게 선에 이바지해 왔다. 가장 고상한 심성의 소유자들은 그들의 도의적 책임의 정도를 가늠하며 그 가르침에 순응하고자 자기 생활을 그에 따라 형성한다.」

「성경의 말씀과 그 핵심은 희망이다. 그것은 독자의 마음에 신념을 심어준다. 실망한 상태에 있던가 즐거운 기분

에 젖어 있던간에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안정시켜 준다.」

삼대 종교가 성경에 근원을 가지고 있다.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이다. 이들 종교는 성경에 제약받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거기서 출발했으며 성경은 그 교리와 실천에 확고한 영향을 주고 있다.

성경이 당시에는 세계 문화의 위대한 공헌자인 민족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히랍인들은 우리에게 철학, 미술, 조각 그리고 많은 어휘를 남겼고, 로마인들은 법률의 형태, 정부, 행정, 미술, 조각, 음악 그리고 많은 어휘를 남겼다. 그런데 성경을 제작하여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이스라엘은 미술, 조각, 음악, 언어 또는 성서시대의 문학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명예를 떠러트리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그의 사명과 진수의 원천을 더 자세하게 규정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국민들이 음악, 미술, 조각, 문학 및 기타 예술 표현에 있어서 가시적인 표현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불을 붙이는 성스러운 불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선민—신성한 글을 기록한—에게 주신 영감과 천재성에 뿌리박고 있다. 신에게서 받는 계시는 인간 생활에 사명을 전달하는 이스라엘의 근원이었다. (니파이 29 : 4) 세상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사명은 영적인 것이었으며 이스라엘 예언자와 사도들은 영적 감수자였다. 이방인들은 미술, 조각 같은 물질적 형태에 영적 멧세지를 표현시켰다. 아마도 그것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계명이었을 것이며 그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범위한 예술 형태를 제한시키고 사회과학, 음악 문학에 대한 노력을 불러 이르켰는지 모른다.

성경의 최대 영향은 인간 정신에 끼쳐졌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에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적 요소는 여기서부터 비롯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인간의 영성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행동이나 행위라는 외형적인 발현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것이므로 성경이 변화시킨 개인의 태도나 생활의 정도만으로 그것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성경의 내용을 명상하는 은밀한 시간을 통하여 변화하는 즐거움을 구하며 행복을 찾는 수 많은 인간의 상태를 어떤 지상적인 책으로 기록할 수는 결코 없다.

헨서 반 다이크는 예술 작품에 미친 성경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 성경에 연유한 사상, 감정, 환상에 분

미치는 영향

로버트 제이. 마태

명히 힘입고 있는 모든 예술작품의 요소를 나텔로의 다윗상이나 미케란젤로의 모세상과 같은 모든 조각품, 라파엘의 시스틴의 마돈나와 뮤릴로의 성가족과 같은 모든 회화, 바하의 수난 미사곡과 헨델의 메시아같은 음악, 또 단테의 신곡이나 밀톤의 실락원과 같은 시로부터 분해시킬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메마르겠는가.]

오라토리오, 칸타타, 그림, 조각품, 영가, 찬송가, 성가 및 언제나 가치있는 기타 예술작품의 목록은 거이 끝이 없을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비유나 직접적인 인용은 모든 종류의 서적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리학 역사학, 정치, 자연과학, 지질학 기타 서적에서 그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신문이나 시사적인 비종교적인 잡지들은 극적 효과를 노려 흔히 성경 귀절이나 비유를 인용한다. 문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화 시업에서도 그 영향을 볼 수 있다. 많은 영화나 필름이 학교나 세미나에서의 교육을 목적으로 사회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대중 오락을 위한 장편 영화중 많은 것이 성경의 주제나 제목 아니면 그 양쪽의 영향을 받고 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 「성경」 「십계」 「십자가의 표적」 「왕중왕」 「퀘오 바디스」 「다윈과 바세바」 「사막의 여왕」 「삼손과 데릴라」 「성의」 「사로메」 「바라바」를 생각해 보고 또 성경의 주제를 설명하는 목적이 아닌 많은 다른 영화들을 생각해 보라.

성경은 우리의 일상어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으니 성경에 있는 귀절이 거의 어디서나 쓰이고 있음을 듣는다. 이들 중 많은 것은 아마도 오늘날 보다는 성경이 많이 읽히던 시대에 우리의 언어속에 들어와서 일상어로 남아 있는 것 같다. 그 유래를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도 있다. 일상어나 흔히 쓰이는 귀절이 그 깊은 의미나 기원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그 밖에도 우리의 일상 용어에는 성경에서 유래했지만 바로 인용되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흔히 쓰이는 말로 「악인에게는 휴식이 없다」라는 말은 아마 이사야 48장 22절에 있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에서 나왔을 것이다. 「적은 새가 그 말을 전하다」는 전도서

10장20절에 있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름이나 성씨에는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끝도 없을 만큼 많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평범한 것이어서 구태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떤 시대의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유래한 이름에 대한 생각이 강한 나머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 대신에 이방인의 이름인 클라우드라고 부른 사람을 칼빈이 투옥시켰다는 기록도 있다.

현존 법률을 보더라도 로마 법전은 그 구조에 있어 히브리 법전의 정신을 펴 많이 본받고 있고 영국과 미국의 법률은 모세의 율법에 바탕을 둔 것이 많다.

공식적인 법정에서 증인은 손을 성경위에 얹고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 한다. 사람들은 관청에서도 흔히 성경위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 「성경에 맹세코」라는 말이나 더 명확하게는 “성경 더미에 맹세코”라는 말을 우리는 속어에서 흔히 듣는다.

콜럼버스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모두 적은 「예언의 책」을 엮었다고 하는데 그의 판단으로는 신세계에 관한 참조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이것을 베번제의 아메리카 탐험을 준비하면서 1501년 9월 13일에 끝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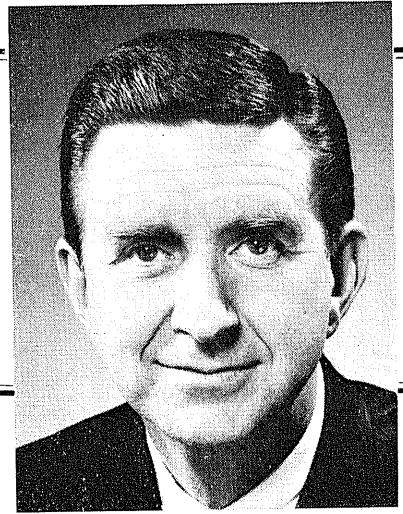
헤르디난트 왕과 이사벨라 여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하던 수많은 기회에 콜럼버스는 자신의 탐험에 참고가 된다고 믿었던 이들 성경속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는 이사야서가 이 문제에 특히 도움이 됨을 알았다. 콜럼버스의 빈번한 편지와 발언을 보면 자기가 신세계를 발견하는 신성한 소명을 받고 있다고 확신이 있었으며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말씀을 이용할 때 엄숙하고 진실했던 것이다.

청교도들과 그외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자기들의 이해에 합치한 대로 예배하기 원했기 때문에 아메리카에 왔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이 여러 세기 동안 넓은 지역에 걸쳐 사람들의 생활, 종교, 기타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값으로 따질수 없는 보배이며 우리 민족의 유산이다. 수천년 동안 수 많은 사람에게 영적분만에 도움이 되었던 항구성과 다대한 유익성은 성경의 중심인물이며 지구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물몬경의 편집자, 저작자, 장군,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물 몬



마리온 디. 헝크스
(십이사도 보조)

물몬경의 편집자, 축소자인 물몬은 예언자였으며 의로운 사람으로 니파이 민족의 장군이기도 하였다. 강직한 기질과 깊은 신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국민의 교사며, 인도자였고, 예수님의 간증과 회개를 외치고 국민을 선도하는 인도자였다. 전쟁에서도 승리의 개가를 울려 국민들이 불의하게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망각하였을 때, 물몬은 전쟁에서 그들을 지휘할 것을 한동안 거절하였다. 적을 살륙하고 복수를 명세함을 힐책했으나 참혹한 패전과 파괴를 보고서 마음을 돌이켜 군대를 이끌어 나갔다. 그는 니파이인들을 전멸케 한 무서운 전투에서 그들과 함께 죽었다.

그의 이름은 물몬의 땅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그곳은 아비나다이의 설교에 의해서 개종한 엘마가 노아왕의 궁궐에서 나와 피난처를 삼았던 곳이며, 예수의 교회가 설립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다른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던 물몬은 국민의 기록의 역사가이자 보관자였고, 그 기록을 축소하는 거창한 사업을 다하도록 소명받았다. 물몬경은 많은 저자들이 쓰긴 하였으나 가장 문학에 조예가 깊은 일꾼인 그의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었다.

인간 물몬

이 사람을 예언자, 장군, 역사가로 만든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에게 가장 문제된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의 생애는 그의 확신을 얼마나 훌륭하게 반영시켰을까?

물몬은 리하이와 니파이의 「직계자손」이었다. 그의 기질과 행위가 초년시대의 언제부터 명백하게 되었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열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착실하며 재치가 있는」 책임감있는 인간성으로 알려졌으며 장래에 대한 중대한 임무를 받았다.

열한살 때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제이라 헤물라 땅에 여행했다.

열 다섯살에는 「주께서 방문하심에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고」

열 여섯살에는 니파이 군대를 지휘하였다.

그의 십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얻지 못하고 성령이 그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았을 때」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두려움없이 권고하였다.

다른 위대한 사람이나 예수가 지상에 계셨을 때와 같이 물몬의 팔목할만 한 사명과 공헌은 그가 매우 어릴 때부터 싹텄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마음을 정하였고 그의 초년시대에 그는 생애를 그 일을 위해 내맡겼다. 위대한 약속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생활중에 이루어졌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가 어떻게 봉사했는가는 물몬의 간단한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로 영생을 얻게할 뜻으로 주께 부름을 받은 자라.」

그는 「모든 선한 것은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믿고 있었고 또 강력하게 그렇게 가르쳤다.

그는 그들에게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선한 모든 것을 좇으며 이를 정죄하지 아니할진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고 권고 했고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을 변호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성을 사랑했다

그는 백성들이 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다.

「나는 저들을 인도하여 전쟁도 여러번 치렀으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 저들을 사랑하였고 평생을 두고 저들을 위하여 심령을 다 기울여 기도 하였으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함은 나의 형제로 인함이라.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며.」

「나는 완전한 사랑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노니 그들은 다 같으며 구원을 함께하는 자라.」

물몬은 그의 백성들의 회개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 「저

주받은 자의 슬픔」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은혜의 날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라졌음」을 알고 그들을 위해 간구했다.

그의 가장 열렬한 소망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을 너희 모두에게 설득하는」 것이었다.

현명하고 믿음이 강한 교사

물론은 그의 신념대로 살았다. 그의 가르침의 위대한 영적 길이는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현명한 교훈과 그의 사명에 일치하는 행위로 맺어 있다.

「가장 값지고 무엇보다도 귀한 것 즉 순결과 도덕을 명예를 가지고 보호하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간청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간절히 간청했다.

「은 정력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할 것.」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 것.」

자비심을 가질 것 왜냐하면, 「자비심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며 영원한 것이다.」

「마음속에 진정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베풀 것.」

그리스도의 영에 쉽게 움직일 것 왜냐 하면 그것은 「선과 악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으시기 때문이다.

에언자와 천사와 기적을 믿을 것. 하나님은 「세상사람에게 뜻을 보이시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유대인과 레이맨인의 회복과 아킴지파와 요셉지파가 모임을 믿을 것.

권면과 약속

물론은 학살과 파괴와 비극적인 불의속에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다. 그는 악과 적에 대항하여 싸워 죽었다. 강하고 믿음 깊은 그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끝까지 힘썼다. 그의 고별사는 간절한 소망으로 잘나타나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선을 굳게 지킬 것이며」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한 권면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하였다.

물론 유모어

나의 아들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계획을 세울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늘 마음에 선교사를 그려오다가 남부 독일로 가라는 부름을 받게되었을 때 그 흥분은 절정에 달했다. 그후 수주일은 공과를 암송한다, 건강 진단을 받는다, 치과 치료를 마친다, 쇼핑한다, 여권 수속을 한다 등등으로 눈코 뜰새 없었다.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꽂차 있던 그가 하루는 은행에 들러 여행자용 수표를 사려고 했다. 「액면 금액은?」(denomination 액면, 교파)라고 행원이 물었다. 「LDS(말일성도)」 「뭐라고요?」 「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분한 듯이 선교사는 대답했다. 그래도 행원은 이상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가 의미하는 종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얼굴을 붉혔다. 「십불짜리입니다.」—글로리아 바버여사, 워싱턴 주 파스코 시.

변호사—당신은 범칙 현장에서 35피트쯤 떨어진데 있다가요? 그런데도 피의자를 알아 볼 수 있다가요?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멀리까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까? 증인—「글쎄요 아침에 깨면 태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9천 3백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들 하지 않아요?」

전근 명령을 받고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내 앞자리에 앉은 젊은 부인 한 분이 갑자기 뒤돌아 보면서 「실례합니

다만, 선생님은 미국인이시죠. 그렇죠?」라고 말했다. 저는 대답하기를 「아니요, 저는 호주사람입니다.」 이 말에 그 부인은 사과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돌아 앉았다. 그녀의 질문을 얼마 동안 생각하다가 나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치고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를 미국인으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물론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오웬 비, 뉘첼버그, 뉴질랜드 남부 선교부.

시골 목사님이 교회벽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붙였다. 「스미스 형제는 네시반에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 날 목사가 보니까 그 광고아래 「천국발 오전 9시 현재, 스미스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몹시 기다리고 있음.」이라고 연필로 쓰여 있었다.

우리 가족이 교회의 구도자로 있을 때 선교사와 함께 주일학교에 참석해 보았다. 교회에 다녀온 후에 어린 여동생에게 유년 주일학교가 어떠했는지 물어 보았다.

「글쎄 대단치 않은 사내 애들이 한방 가득 앉아 나를 놀리기만 하던데 뭐.」라고 말하더니 표정이 밝아 지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그런데 그런 말썽 꾸러기 애들이 그렇게 훌륭한 장로로 변할 수 있는 교회야 말로 참된 교회가 아닐수 없어요.」—케로린 브린크 코로라도주 덴버시.

관리 감독이 청소년의

뿌리와 작은 뿌리가 387마일이나 되는 호밀을 어느 사람이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조그마한 호밀이 그와 같이 광범위한 기초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재미 있는 일입니다.

조그마한 호밀이 그같이 단단하게 뿌리를 박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영적 가치에 얼마나 굳게 뿌리를 박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날의 거센 세상 풍파를 견딜 수 있는 영적 뿌리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는가.」 만일 부모가 자녀를 도와서 이 영적 밑바탕을 확립해 주지 않는다면 심중 팔구는 뿌리를 박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젊은이의 생활에 부모가 끼치는 영향만큼 힘차고 강력 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영향이 건설적이든 아니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아이들은 그 가정과 부모의 거울입니다. 마하트마 깐디는 「내 생애 그것이 나의 벵세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도 진리입니다. 부모의 행복, 문제, 목표, 신조 그리고 철학 모두는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디. 엘. 로는 이러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만일 자녀가 비난과 함께 자라면 욕을 배우며

만일 자녀가 반항심과 함께 자라면 싸움을 배운다.

만일 자녀가 두려움 속에서 자라면 겁먹기를 배우며

만일 자녀가 연민과 함께 자라면 자신을 가엽게 여기기를 배우며

만일 자녀가 조롱 속에서 자라면 수집어하기를 배우며

만일 자녀가 질투와 함께 자라면 죄책감 갖기를 배우며

만일 자녀가 관용과 함께 자라면 인내를 배우며

만일 자녀가 용기와 함께 자라면 자신 갖기를 배우며
만일 자녀가 칭찬을 받으며 자라면 감사하기를 배우며
만일 자녀가 승인받으면서 자라나면 자신을 좋아하기를 배우며

만일 자녀가 인정받으면서 자라나면 목표갖기를 배우며
만일 그가 정직과 함께 자라면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며
만일 그가 안전과 함께 자라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 갖기를 배우며

만일 자녀가 친절과 함께 자라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을 배움,

만일 호평을 받고 자라면 그는 사랑하기를 배운다.」

사실 부모는 어느정도까지는 자기 자녀의 성품을 형성시켜줍니다. 자녀가 청년기가되어 부분적이긴 하지만 독립하려고 힘쓸 때 부모는 뚜렷하게 가르쳤거나 소홀히 가르쳤거나 자녀는 더욱더 가정 교육을 반사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주의를 이들 젊은이, 우리의 아른 신권의 젊은이와 상향회 연령의 젊은 여자에게 집중시키고 싶습니다. 이들 연령은 생기가 넘치는 나이이며, 중대한 압력을 받는 나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나이요, 수많은 유혹을 받는 나이입니다.

부모들이 아들 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이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연령의 젊은이들이 독립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규칙과 지시를 받는 건설적인 훈련이 특별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개인의 독창력과 성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인쇄된 어구에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열 아홉 살의 고아와 같은 소녀입니다. 나의 식구는

부모님에게 드리는 말씀

존 에이취, 반덴버그 감독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로든지 누구하고나 어느 때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없습니다. …… 십대에게는 모두 순종해야 할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은 어느 누가 자기들을 진정으로 돌봐주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젊은이에게는 자기들이 따라야 할 노정을 부모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 서도 똑같은 부모의 기대를 지니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고대 이스라엘 제사인 엘리를 다루는 방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는 말 안듣는 아들을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엄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 하였음이니라.」 (삼상 3 : 11~14)

오늘날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가정에 가장이 없고 가정 교육이 없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범죄 방지 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가운데 범죄 문제의 대부분의 비난의 화살을,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책임이 젊은이에게 있음이 명백한 일이지만, 부모에게 돌렸습니다. 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기관—즉 학교, 교회, 사회 봉사 단체, 청년 단체—등의 프로그램과 활동은 자녀들이 인생, 도덕적 표준, 가정등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습득하여 알고 있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들이다.

전국적으로, 도시나 교외에서, 가난하거나 부한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젊은 사람을 다스리는 부모 특히 가장으로서의 권리가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젊은이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젊은 세대를 도덕적 힘과 고상한 이상으로 굳게 하는 길은 정부 보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 각자가 부모로서의 자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깨닫는데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가정에 돌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야만 된다고 선언하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어떠한 다른 성공으로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는 말은 인용되는 이상의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을 믿고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밤을 통하여 부모는 훌륭한 가족을 기르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영감이 깃든 프로그램을 소홀히 하면 기대 이하의 가족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할 부모의 책임은 아담의 시대부터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예언자는 고대 이스라엘인에게 다음과 같은 훈계를 주었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난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신명기 11 : 19) 이 훈계가 새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응용해야 할 필요가 지금보다 더 절박한 때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각성

린 다 랫 드

채 일년이 못됐지만 내가 상호 부교회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동기는 친구이자 이웃인 교회의 적극적인 회원의 권고에 의해서 였다. 나는 내가 교회의 부녀들의 「타입」에 맞는다고는 생각지 않았고 또 상호 부교회란 노부인들이 모여 앉아서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파일을 바구니에 달고 있는 것을 상상했다. 아마 이 말에서 독자의 대부분은 내가 회원이 아니었음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침례받은 회원이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상호부교회에 대한 나의 최초의 경험은 눈이 번쩍뜨이는 것이었다. 나는 자매들에게서 우정을 느꼈고 동료애를 느꼈다. 무엇보다 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의 자매들 간에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훌륭한 무엇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간이 갈 수록 나는 부교회 집회의 정규적인 방문자가 되었다. 이상한 일이 나의 생활에 일어났으니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가정적이 되는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 나는 요리하는 것을 싫어했고 바느질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무엇보다도 집안 청소하기를 싫어했다. 나의 남편이 훌륭한 요리를 하고 집안을 치우고 하는 것이 나를 피롭히거나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다—나는 그러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내 남편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어느날 한 자매는 오십센트로 산 낡은 코트를 개조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나는 그러한 일이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정말 놀라버렸다. 나는 집에 들어가 모임에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생각해보고 바느질을 해보려고 결심했다. 나는 잠을 사서 부활절에 입을 애기의 옷, 코트, 모자를 만들었다. 내 손으로 내가 창조해낸 값진 것을 보다니 얼마나 드릴이 있는 경험이였는지. 나는 이러한 자랑을 전에 결코 맛본 적이 없었다. 남편에게 코트를 보였을 때 그의 눈에 어린 찬탄은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것이었다.

또 다른 모임에서 나의 생활은 또 다른 길로 변화했다. 우리는 가정에서의 식품저장을 위한 깡통만드는 법 등을 상당히 오랜동안 토의하였다. 현대적이고 옷 잘 입고 높은 교육을 받은 여인들이 옛날의 깡통 제조법을 토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들으면 들을 수록 나는 나도 식품의 가정저장을 하려한다면 깡통저장을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번 계절에는 깡통저장을 하나도 하지 못했지만 썸은 사십 파인트나 만들었으며 그것이 모두 잘 되었다. 내년에는 자꾸 불어가는 나의 살림 솜씨에 깡통 저장법도 끼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도 집안청소는 즐기지 않고 있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보다 좋은 일을 하려고 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나는 날로 나의 가정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정과 가정에 관계있는 일에 더욱 자랑을 느낄 때 남편이 더욱 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의 생활의 새로운 성취와 풍성은 상호 부교회에 힘입은 것이다. 매주일 교회에 가서 아내가 되려고 배우는 아내를, 어머니가 되려고 배우는 어머니를, 여인이 되려고 배우는 여인들이 그들이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을 보고 이렇게 훌륭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행운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나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나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고, 상호부교회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조그만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멀리 여행하며 배울 것도 많지만 이 위대한 교회와 이 훌륭한 조직을 통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망각이란 마술

실비아 프로브스트 영

지난주 어느날 저녁 내가 그의 집에 들렀을 때 내 이웃인 은백의 머리에 주름이 많고 몸집이 작은 여든 네살의 이 여인은 육계가 든 빵을 만들고 있었다. 달콤한 향내는 온 부엌에 가득차으며 밀가루를 밀고 반죽한 것을 자를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만족스런 표정은 살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세월을 따라 더욱더 아름다워진 한 인간의 따뜻함에 젖는다는 생각이 나를 기쁘게 했다.

얼마후 나는 의자에 앉아서 따뜻하고 맛있는 빵을 즐기면서 분홍과 황금색으로 물드리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무엇이 그녀에게 그러한 생의 의욕을 주었는가를 물었다.

그는 잠간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공식의 하나는 잊어버린다는 마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은 마음을 벌레먹게 하는 많은 조그만 상심들이 쉬는 항구예요. 그래서 나는 오랜 세월동안 기억하는 것보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후 나는 그의 말을 여러번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그의 철학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여운 말, 배운, 무심을 기억하기는 얼마나 쉬운가. 비난, 불친절한 말, 분명한 멸시 등 적은 일이 점점 더 커지도록 되새기고 또 되새기기는 얼마나 쉬운 일인가.

한때는 좋은 친구였던 두 부인이 어둠잡은 불평을 키운 나머지 오랫동안 말을 않고 지냈다. 둘 중 하나가 죽음에 다다르자 다른 한 사람은 슬프게도 깨닫게 되었으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둘중 어느 한쪽이 망각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추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용서할 수는 있으나 결코 잊을 수는 없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잘못을 잊지 않으면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진정 믿는 가운데서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얼마나 실수가 많은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길 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남의 잘못에 더 너그러우질 수 있지 않을까? 쓰라림을 키우는 사람이 행복의 수확을 바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둘은 같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존경할만 한 나의 이웃은 참으로 현명하였으니, 그녀는 추에서 돌아서서 미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 부인에게서 나는 위대한 교훈을 배웠으니 그것을 나의 생활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므로써 나는 하나님의 값있는 시녀가 될 것이다.

주일학교 페이지

가르친다는 것은 말하는 것 이상의 것

라이먼 씨. 베레트

얼마전에 두 소년이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동생이 형의 손을 뿌리치고 자동차가 오가는 길가 언덕으로 무모하게 달려 가다가 차에 치어 죽사했습니다. 경솔한 부모는 동생의 죽음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큰 아들은 마구 꾸짖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동생의 갑작스런 죽음과 부모의 책망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소년은 고독의 밀실속으로 빠져 들어갔고 얼마지나지 않아 집에서나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때 온순했던 소년이 이제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학교 당국은 그의 태도가 견잡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퇴학 처분을 하겠다고 위협했고, 사실 아무도 그 소년을 다룰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독의 밀실이 드디어 이해심이 많은 교회의 교사에 의하여 열려졌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이 교사는 점차 이 소년의 문제의 원인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신뢰와 신임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교당국에서 이 소년의 퇴학 처분에 관해 마지막으로 회의를 열었을 때 카운셀러는 소년에게 너무 늦기 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한 신뢰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자기 교회의 교사의 이름을 대게 되었고 마침내 그 교사는 회의에 와서 소년의 어려움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는 청을 받았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이해하게 되었고 전문적인 카운셀링이 소년을 회복시켜 소년으로 하여금 훌륭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교사가 그의 이름을 아는데서 벗어나 학생에 대하여 충분히 아는 정도로 돌아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학생을 개별적으로 알며 학생의 생활에 개인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학생에게 사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교실에서 주는 것 이상의 것을 소년에게 줄만큼 실제로 그를 돌보았고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대개의 교사는 자신의 철학을 교실에 반영시킵니다. 젊은이의 가치에 관한 정반대되는 철학적 사상은 다음 두 사상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 실존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무에서 유래되었고 지금도 거의 무이며 무를 위해 운명 지워져 있다. (트루만 지. 메이슨 영원한 인간 28페이지) (2) 지상의 주민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교성 76:24 참조)

첫째 사상을 문자 그대로 믿는 교사는 아마 찾아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번 것도 믿지 않는 교사가 더러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린이에게 무슨 소리를 한들 상관이 뭐냐, 어차피 그들도 이런 문제를 알게 될 걸.」이라는 태도를 갖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는 사랑에 대한 구세주의 위대한 교훈의 중요성을 증명했었습니다.

본인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서 구세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13:34~35, 마태 22:34~40 참조) 루이스 피. 톨프라는 어느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 결핍은.....알맞는 방식으로 인류 각 개인에게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기가 된다. 인간의 본성은 결핍과 만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급방 이해된다.그러나 다음 사항은 행동 경향의 근거를 아는데 유용할 것 같다. 1. 육체적 건강 유지의 필요. 2.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을 필요. 3. 보호, 안정, 사랑, 애정, 위안의 필요(루이스 피. 톨프, '정신건강의 심리학' 뉴욕 로널드 프레스판 39~40페이지)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며, 더 잘 협조하며, 더 신임하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유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과의 이러한 종류의 친교를 맺는 사람은 그들의 사랑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교사의 경우에 있어서 교사가 학생을 사랑한다는 것은 학생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교사는 실제로 어울려 주고 격려해 주며 칭찬해 주고 승인해 주는 일 그것이 학생에게 영향을 끼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는 학생의 생활과 활동에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한 교사는 어느 학생이 언제 상을 받았는

지 알고 있으며 적절한 찬사를 받았는지도 압니다. 교사는 학생의 생일이 언제며, 생일카드를 받았는지, 전화가 오는지, 아니면 특별한 행사가 있는지를 압니다. 자기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는 학생의 생활과 동떨어 질 수 없습니다. 운동경기, 합창대, 악대, 연극등을 잘했다는 성실한 칭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사가 자기를 돌봐 주며 관심을 기울여 주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학생에게 교회의 표준에 알맞는 생활을 하라고 격려한다든지, 예절과 정의의편에 선다든지, 법률을 지키며 올바른 모범을 보인다는지, 다만 최선을 다함으로써 만족한다든지 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범위는 넓습니다. 만일 학생이 교회의 표준대로 살고 있다면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모나게 굴거나 바보처럼 행세하거나 속임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순수한 관심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노력하는 학생을 격려할 수도 있고, 적절히 인정해 주지 못해서 학생을 낙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복장, 몸가짐, 표준, 출석상항에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호의에 찬 평은 학생의 행동이 이미 교사의 승인을 받은 행동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생활 방식이 된다는 점에서 젊은이를 힘있게 만들어 줍니다.

학생들은 자주 「누가 알아주거나? 하나 지난번에 이러한 일을 했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는 말을 듣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에게는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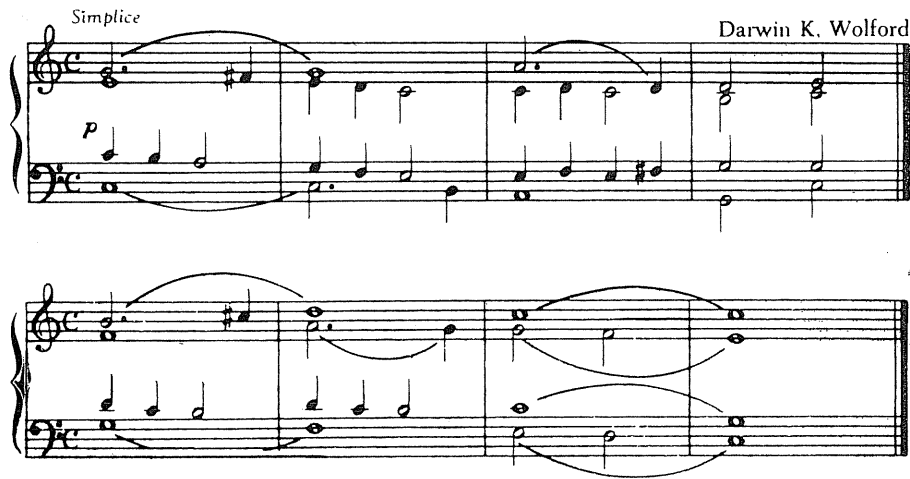
코 잊지 못할 예절입니다. 간단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똑같이 고맙게 여깁니다.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는 가르치는 것은 말하는 것 이상의 것임을 기억할 것 입니다. 학생은 행동함으로써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학생을 사랑하는 열쇠는 행동이라는 사실이 뚜렷해집니다. —단순히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할 일 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교회의 표준대로 살도록 권장하며, 봉사하는 기회를 주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려,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정 되며, 신이 될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 주며,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가 자기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자 구세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세번이나 물으셨고 세번 다 베드로는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세번 다 무엇인가 하라—그의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 21 : 15~17참조)

교회의 교사는 학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0월 성찬식 전주곡



10월 주일학교 성경봉독

장년 주일학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 22 : 37)

유년 주일학교

선한 것은 무엇이든 모두 하나님께로 부더요. (엢마 5 : 40)



<청소년편>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메리 켄워드

제임스는 차고에 차를 넣고 나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 부모를 뵈러 들어 갈 수 없었다. 그렇게 빠리는 갈 수 없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매우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먼저 가져야 했다. 여름에 집을 떠나 있었던 것이 그에게 무엇인가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다.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는 제임스에게는 처음 당하는 일이다. 어떻게 부모에게 이 일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인생이란 전에는 단순하더니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백키는 훌륭한 소녀다. 아마 제임스는 그녀를 사랑했는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지난 토요일 밤 일을 저질렀던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에 알지도 못하던 강력한 힘, 어쩔 수 없는 힘이였다. 아니다. 그는 그것을 다만 베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어떠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환경아래서 일어날 법한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전에는 그렇게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고 그러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 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그가 전에는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인생에 관한 많은 것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 쫓아 살고져 했었다. 그러나 이제 부모를 만나고 교회의 교훈에 직면하니, 그의 마음에 한줄기 의심이 일어난 것이다.

그 일이 있기 까지의 순간 순간이 그의 머리에 뚜렷이 떠올랐다.

그는 파티에서 백키를 만났었다. 그녀는 훌륭한 여자였던 것 같다. 그 일이 있기 전에 파티에 데리러 다녔다. 파티는 그를 매혹 시켰다.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고 기꺼이 그를 받아들였다. 그들이 갖는 다른 활동에 가담하기 원하게 된 것은 그들이 친절히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제임스는 그들의 사고 방식에 이끌려갔고 그리고는 토요일 밤—그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당시 그는 무척 행복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나빠졌는가?

제임스는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기도」라는 말은 우습고 장소에 알맞지 않은 것 같았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저의 가족이 저를 받아 주도록 도와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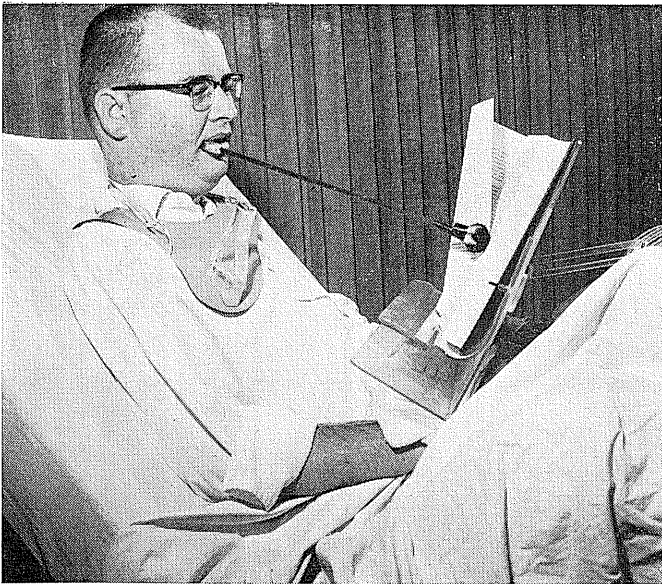
천천히 새로운 용기가 솟아 나왔다. 쏟아진 물은 담을 수가 없는 법이다. 그는 그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었다. 그 이상 변경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었다.

차에서 뛰어 내려 식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서너 차례의 포옹과 키스가 있는 뒤에 숨을 크게 쉬고 그는 깨끗이 섰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끄집어 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저질른 일을 말씀드리면 저를 이해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 반대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거듭생각하고 저질러 버렸습니다. 저는 물론으로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정련소의 불

마리온
벤처



버렸다. 그는 마비에 걸린 이래로 교회에서 베가지나 다른 직책을 맡았었다. 즉 장로 정원회 교사, 방문자반 교사, 복음 교리반 교사(5년간), 현재는 산디아고 동부 스테이크 엘 카중 제3와드 주일학교 보좌를 맡아 보고 있다. 그는 이러한 부름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한 일이 없었다.

또한 마비에 걸린 이래로 개업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산디아고 대학교의 야간 법과 대학에서 공부하여 4년후인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우등으로 졸업하였다. 친구 대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드웨인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었다. 2년전에는 캘리포니아주 법정 변호인 시험에 합격하여 취업승인을 얻었다. 이 시험에 합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험을 치루는데 신체 장애가 있다고 특혜를 받지 않았으며 응시자중 과반수만이 합격했었다. 그는 사무실을 차리고 지금까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다.

15년전 드웨인은 자부심이 강한 것 결혼한 해군 조종사였다. 그의 장래는 훤히 트여 있는 것 같았다.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갖기로 하였었다.

그러나 2년 뒤 소아마비와 투쟁하게 되었다. 마비 증세는 천천히 그의 몸에 스며 들었다. 사망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지자 또다른 커다란 문제가 생겨났다. 그것은 그와 그의 아내 에메랄드가 신앙과 용기와 인생에 대한 강한 철학이 어떤 도전에 직면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에메랄드는 남편보다 덜 심한 신체장애자가 병원에서 죽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죽은 자들은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드웨인은 「영원한 진보라는 훌륭한 말일성도의 오랜 교리」가 자신을 전진하게 해 주었다고 말한다.

행동과 마음가짐

우리는 사람의 동작을 관찰하므로써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된다. 사람이란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은 마음가짐으로 결정된다. 드웨인은 믿기를 「우리들 모두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배우고 행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변호사가 되고 유능한 교회의 일군이 되겠다는 야심적인 계획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일단 결정을 내리면

39세의 드웨인 수테점의 생애는 많은 복음의 원칙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다. 그의 생애는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날만 한 무관심과 자기 연민으로 생겨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업적을 남길 만큼 독특한 것이다.

드웨인은 15년전에 목에서 부터 아래까지 전부 마비되어

두배의 노력을 쏟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어려움때문에 다른 장애를 만났다. 제향군회에서는 그가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에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제적 원조를 「거절」했다. 그는 그들과 협조하였고 그들은 한두 학기를 마칠 수 있으면 법과대학의 등록금지불 보증을 재고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의 공부하는 버릇은 간단했다. 꾸준히 하는 것이었다.

학교에 있는 동안 그가 하는 일정한 정상적인 일상 생활은 일찍 일어나 부인이 딸을 학교로 보낼 때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세수하며 수업을 짊으며 아침을 먹는다. 정오까지 공부하고 점심후 잠시 쉬고 다시 공부를 계속한다. 때때로 건날에는 뜰에 나가 휴식을 취한다.

드웨인이 학교 다닐 때, 수테컴 일가는 계획을 세워 신체 장애에 알맞는 집으로 개조했는데 홀과 통로를 더 넓히고 계단 대신 경사를 만들었다. 침실에는 이발관의 의자 비슷한 움직이는 특별한 의자를 갖다 놓았다. 그는 횡경막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는 목의 근육으로 펌프 작용을 해서 허파에 공기를 집어 넣어야 했다. 바람을 들이키는데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러나 말하는데는 거리낌이 없었다. 그의 침대는 밤에는 흔들려서 잠자는 동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었다.

공부할 때는 받침대로 받친 몸과 팔이 책의 받침이 되었다. 책장은 끝에 고무가 달린 막대기를 입에 물고 넘긴다.

그는 미소 지으며 재빨리 대답을 해낸다. 에메랄드는 미소지으면서 그가 턱으로 조종하는 자동 휠체어로 온 집안을 뒤쫓으면서 얼마나 짓궂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

성공적인 교사

거이 10년 가까이 성공적인 교회 교사로 일해 온 드웨인은 그의 방법을 소개하였다.

1. 그는 요약을 적어서 가르친다. 다루어야 할 특별한 점은 논리적으로 전개시켜 주요점을 구축해 낸다. 이것은 기억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기억력에 의존한다는 것은 판에 박은 듯한 공과 제시밖에 하지 못한다. 요점을 기록해 두면 기억력의 실수를 방지해 주며 공과 제시 시간을 절약시켜 준다.

2. 준비하는데 최소한 일주에 2시간을 소비한다. 교사는 수시로 끄집어 내어 쓸 수 있는 지식의 보고를 쌓아야 하지만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

3. 논리적인 공과 제시는 성인에게 필수적이다. 이를 주의 깊게 연구한다.

4. 각 공과에 키 포인트를 하나씩 삼는다. 보통으로 학생은 한 공과에 주요 개념 하나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5. 기도하면서 교실에 들어간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고 그는 말했다.

6. 토론을 위해 지원자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반 회원에게 시킨다. 이것은 솔직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한다.

7. 임기응변을 잘한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때 거기에 잘 대응하여 나간다.

「가르치는 중에 인상 깊었던 일은—우리는 크든 적든 영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감없이는 복음의 원칙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영감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그는 결론 지었다.

그가 시청각 교재가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예를 들면 장로정원회를 가르칠 때 한 장로가 그를 위해 인쇄를 해 주었다.

수테컴가의 차는 수압식 책을 달아서 그를 실어 준다. 벨방을 멘 드웨인을 휠체어에서 끌어 올려 차에 실는다.

신앙, 용기, 확신.

수년전에 수테컴 일가는 사전에서 「실망」이라는 말을 지워 버려야 했다. 드웨인은 말하기를 「나는 그저 무엇인가 유용한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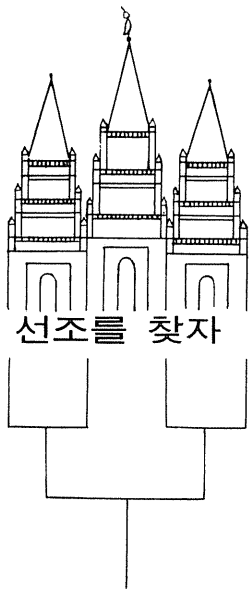
그의 아내는 덧붙이기를 「사람이 병든다는 것은 꼭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드웨인은 정상적인 정신적 자세—개성과 유모어를 유지할 수 있었었습니다.」

매일 그는 용기—어떠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용기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신앙—거의 불가능한 일을 수행해 내는 노력이 따르는 신앙, 복음을 개인생활에 적용하는 태도—자신의 장래를 결정짓는 건전한 태도—를 가졌다.

산디아고 동부 스테이크 부장 제이. 클마포드 왈레이스는 말하기를 「기막힌 재난은 정련소의 불처럼 실망을 뽑아 내버리며 또 인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가려 내게 합니다. 후라의 사태가 소아마비에 걸린 드웨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가 앓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아프게 되던 날 저녁 그에게 기름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만 그는 인생과 재건을 위해 용감하게 싸워 온 것을 보아왔고 지금은 가까운 친구요, 이웃입니다.」

「인생과 지혜와, 사람의 필요를 알아차리는 센스가 그에게는 크게 발전되어 있습니다.—제가 복음 교리반을 방문했을때 이 사람을 잘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학생에게 생각하기를 강력히 충고할 때 학생은 배우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회복의 실재성에 대한 굳은 그의 간증이 학생들 마음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문제는 자연 속의 인간의 위치를 설명해 주는 사상 체계를 가질 필요성을 야기시킨다. 그의 부인은 지적하기를 「이 생애는 우리의 전체 발전의 조그만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라 하였다. 수테컴 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행복을 가져다 주며 역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생활 방식 그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선조를 찾자

영의 세계

우리가 이 책에서 토론할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하던 중 우리 교회 육대 대관장이신 죠셉 에푸. 스미스의 말씀이 떠올랐다. 성도들에게 하신 그분의 영적인 말씀을 다음에 인용해 보기로 한다.

「나는 1918년 10월 3일 내 방에 앉아서 경전을 상고하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의 위대한 속죄의 희생과, 세상에 구속주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보이신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의 속죄를 통하여 복음의 원리를 순종하므로써 인간이 받게 될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깊은 생각에 골몰하고 있을 때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사도 베드로의 글이 생각났다. 나는 성경을 펴들고 베드로 전서 3장과 4장을 읽었다. 이렇게 읽는 중에 다음 구절에 이르렀을 때는 전에 없이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써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는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여덟명이라”(베드로전서 3:18~20)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베드로 전서 4:6)

이 구절에 쓰여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의 이해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크고 작은 죽은 자들의 무리를 보았다. 한 곳에는 육신으로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의 간증에 충실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위대한 희생의 제물이 된 것처럼 희생의 제물을 바쳤으며, 구세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무수히 많은 의로운 영들이 모여 있었다. 육신을 떠난 이 모든 영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구원받을 날이 가까운 기쁨에 서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의 세계에 오서 자기들을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썩은 육체는 완전한 형태를 다시 찾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뼈와 뼈가 다시 붙고 그 위에 근육과 살이 붙으며 영과 육체가 다시는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몸으로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었다.

이 큰 무리가 죽음에서 풀릴 시간을 기다리며 기뻐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충실했던 자들로 아직 묶여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과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셨으며, 인간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교리도 가르치셨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가지 않으셨다. 살아 있을 때에 자신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았으며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그의 음성을 들려 주시지 않았다. 고대 예언자들의 간증과 경고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 그곳에는 암흑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화평이 있었다. 성도들은 그들이 받을 구원을 생각하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죽음과 지옥의 사슬에서 구해준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용모는 빛났으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그의 신성한 이름을 찬양하고 있었다.

나는 주님께서는 악하고 진리를 거역한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가서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을 임명하여 권능과 권위로 옷입히신 다음 암흑가운데에 있던 모든 인간의 영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선택된 사자들은 나아가서 주님을 맞게 될 날을 외치고 얽매어 있던 자들과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였다. 이렇게 하여 죄를 짓고 진리를 알지 못한채, 죽은 자들과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범법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회개, 죄사유함을 위한 대신 침례, 성신의 안수례 및 그들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나 육으로 사는 사람들과 같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알 필요가 있는 기타 복음의 모든 원칙을 배웠다.

그리하여 작은 자나 큰 자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죽은 자들의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영의 세계에 계시는 동안 살아서 자기를 증거했던 충실한 선지자의 영들을 가르치고 준비시켜, 주님께서 직접 찾아갈 수 없었던 죽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이 주님의 종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 많은 의로운 자 가운데에는 우리의 조상이신 아담과 우리의 어머니이신 이브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지상생활을 보낸 충실한 수많은 딸들과 함께 있었다. 최초로 살해당한 아벨이 그곳에 있었고, 아버지 아담을 닮아 힘이 썩던 그의 동생 셋이 있었다. 홍수를 경고 했던 노아와 위대한 대제사장 셈이 있었고 충실한 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위대한 율법자인 모세가 있었다. 구세주가 오셔서 상한 심령을 안위하고 영육의 문을 열어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리라는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가 그곳에 있었다.

또한 앙상하게 뼈만 있던 몸이 살을 입고 나와서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시현으로 본 에스겔이 있었고 말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다시는 멸망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주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언한 다니엘, 변형의 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던 엘리야, 엘리야가 —이에 대해서는 모로나이도 선

지자 요셉 스미스에게 말한 바 있다. —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리라는 것을 외친 말라기도 그곳에 있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버지의 약속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온 땅이 저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죽은 자들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부모에게 인봉하기 위하여 때가 충만한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신전에게 이루어져야 할 위대한 사업의 전조를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는 니파이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라는 것을 증거한 선지자들이 그 큰 무리 가운데에 섞여 속박의 사슬이 풀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죽은 자들은 육체와 영이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을 속박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를 가르치셨고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여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 불멸과 영생의 월계관을 쓸 특전을 허락하셨으며 그곳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일을 계속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던 것이다.

선지자 요셉 스미스, 나의 아버지이신 하이럼 스미스, 부리감 영, 존 테일러, 월포드 우드러를 위시하여 신전을 세워 그 안에서 행해지는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제 의식과 말일에 있을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때가 충만한 때에 오기로 되어 있던 다른 선택된 훌륭한 영들도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스릴 자들로 선택된 위대하고 고귀한 영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른 많은 영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첫 교훈을 받고 주님의 때에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영혼 구제를 위하여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기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 말세의 충실한 장로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거하는 큰 영의 세계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교리를 계속 전파한다는 것을 알았다. 죽은 자들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의식에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죄과를 지불한 다음 깨끗하게 되면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이는 그들도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에게 보여진 죽은 자들의 구원에 관한 시현이었다. 나는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의 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이 기록이 참됨을 안다. 아멘」(복음교리 597~601페이지)

늙은 어부

마리 바텔스

어느 여름날 저녁,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가서 문을 열어 보니 참으로 흉칙스럽게 생긴 노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허리가 굽고 몸이 비틀린 이 노인을 보고는 「겨우 우리 집 여덟살 난 아이의 키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소름끼치게 하는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그의 얼굴은 부어서 이그러져 있었을뿐 아니라, 붉고 살갓이 벗겨진 것 같았다.

그러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동부 해안에서 이 병원에 치료받으러 왔읍니다만, 내일 아침까지는 그곳으로 떠나는 배스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루밤 댁에서 쉬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려 왔읍니다.」고 말하는 그의 음성은 뜻밖에도 상냥했다.

그는 점심 때부터 방을 찾아 다녔으나 허사였다는 것이었다. 「아마 제 얼굴 때문이겠죠. 저도 알죠. 제 얼굴이 무섭게 생겼다는 것을. 그러나 의사는 제가 앞으로 몇번만 더치료를 한다면 하는…」

나는 좀 망서렸으나 「제가 탄 배스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나니까 이 현관 의자에서 하루밤만 지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라는 그의 다음 말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보겠으니 현관에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저녁을 다 만들어 놓고는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았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종이 봉지를 들어 보여주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그와 좀 얘기하려고 현관으로 나갔다. 이 노인은 적은 체구에 비해 마음은 너무나 넓다는 사실을 곧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고기를 잡아서 자기 딸과 딸의 다섯 아이와 등에 상처를 입어 불구가 된 딸의 남편의 생계를 돌본다는 것이었다. 그는 전혀 불평하는 투로 말하지 않았다.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서두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는 자기 병은 분명히 피부 암인데 이 병으로 전혀 아픔은 느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었다. 자기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

잘 시간이 되어 우리는 이 노인을 위하여 간이용 침대 하나를 준비한 방으로 안내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가 일어났을 때 침대 깔개는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으며 노인은

이미 현관에 나와 있었다. 그는 아침 식사도 거절하였다. 그러나 떠나기 직전에 좀 망서리더니 「다음번 치료받으러 와셔도 다시 이곳에 머물 수 있겠느냐」고 황송한듯이 물었다. 그리고는 맥을 피롭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의자 하나만으로도 편히 잘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좀 머뭇거리더니 「백의 아이들은 저를 펴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큰 어른들은 제 얼굴을 보고 괴로워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전혀 그런것 같지 않아요.」라고 덧붙여 말했다.

나는 그가 다시 와도 좋다고 말했다. 다음에 왔을 때는 아침 일곱시가 좀 넘어서 도착했다. 그는 내가 전에 보지 못하던 큰 생선 하나와 가장 큰 굴을 한 되쯤을 가지고 왔다. 그는 그날 아침 떠나기 직전에 껍질을 깎기 때문에 아주 싱싱하리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배스가 아침 네 시에 떠난다는 것을 알고 그가 그 배스를 타려면 몇시에 일어나야 하나. 걱정이 되었다.

그가 우리집에 와서 묵을 때는 언제나 생선, 굴, 혹은 자기 뜰에서 기른 야채를 가져오고는 했다.

그 후에는 우편으로 (언제나 속달 우편으로) 소포를 보내왔다. 생선과 굴을 신선한 시금치나 양배추를 담은 상자에 넣어서 보내왔다. 시금치나 양배추 잎은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서 그렇게 넣어 보냈다. 그가 이것을 부치려면 삼마일이나 걸어 나와야 하며 재정적으로 궁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선물은 더욱 귀중하게 생각 되었다.

나는 최근에 온실을 가지고 있는 한 친구를 찾아갔다. 그녀가 기른 꽃들을 보다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활짝핀 황금빛 국화를 보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은 처음엔 다 낡고 녹슨 통에서 키워졌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내것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화분에 길렀을 것이라고 혼자 생각했다. 그러나 이 친구는 내 생각을 고쳐주었다.

「저는 이 꽃이 아름다우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화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정원에 이식할 때까지 잠시동안만 이 낡은 바께쓰에 심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설명해주었다.

그녀는 왜 내가 것처럼 기쁘게 소리내어 웃었는지 궁금해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있을 이와 같은 광경을 상상하고 그렇게 웃었다. 하나님이 이 어부에게로 오신다면 「여기에 특별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구나. 그가 이 처럼 작은 체구를 가졌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아름다운 영혼이 하나님의 정원에서는 얼마나 크게 자랄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교리와 성약 93편 19절의 말씀

선교부장 서 현 보

이번 달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의 「표준 성전」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준 성전」은 성경,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입니다. 교회의 시책은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그 나라 말로 이 네 권의 책이 모두 번역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란서, 독일, 놀웨이,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 기타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오래전 부터 이러한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랑스럽게도 다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수고와 기도와 피눈물나는 노력끝에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회원 각 사람은 모두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은 회원으로서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느껴야하고 확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한국에도 이 말일에 위대한 충만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외쳐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우리 집에 교회의 표준 성전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물문경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출판된 기록 중에서 가장 놀랄만 한 책입니다. 이 책 처럼 가혹한 비평을 받았고 학식있는 자나 무식한 자의 격렬한 반대를 받은 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안에 실려 있는 진리를 읽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련분은 경전을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물문경 한국어판은 출판된지 이년이 넘습시다만 아직도 많은 물문경이 선교본부 판매부 선반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선교부 선반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여러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이라 하는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교리라는 말은 신조 또는 계시된 진리이고 성약이란 주님과 맺은 협정 또는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교리와 성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맺어진 협정이 실려 있는 책이라 하겠습니까. 교리와 성약에는 많은 예언 그리고 신권과 조직, 모든 진리 및 성약에 관해, 교회에 주시는 많은 지시가 실려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와 비교해 보진테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의 조직은 아직 어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의 조직, 교리를 배우기를 원해왔습니다. 이 조직과 교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되었고 차례로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함은 너희로 예배하는 방법을 깨달아 알아 예배하는 자가 누구임을 알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와서 정한 시간에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93 : 19)

죄와 회개 1 : 31~33 신권의 의무 20 : 38
신앙의 중요성 8 : 10 영광의 세가지 76 : 96~98
기도의 응답 9 : 8~9 십일조 119 : 3~4
아론신권 13편

등의 지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인용구는 자주 인용되는 귀절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교리와 성약을 연구하고 우리의 가족에게 그것을 가르쳐 해의 영광에서 승영을 얻고 영생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물문경과 성경과 같이 교리와 성약의 진정한 중요성은 그 교훈을 실천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부할 책을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람 엠.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에 대해 말하기를 「그와 같은 연구와 우리의 생활에 그 말씀을 적용시킴으로써 만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끼쳐주며 장차 승영받기에 합당하게 해 줍니다. 단순히 읽는데 그친다면 아무 뜻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단정히 하지 않고 거울앞에 서는 것은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 흐트러진 곳을 매만짐으로써 우리는 동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도 이와 꼭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하는 생활을 영위한다면 우리의 인격은 그에 따라 형성될 것이요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허락을 받은 분들과 사귀기에 적합하게 될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같은 생활을 하도록 힘 씁시다.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도구를 빠짐없이 가추도록 합시다. 이 도구는 성경, 물문경, 그리고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예하 각 지부 주소

선교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전화 ㉓ 3995

중앙지방부

청운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전화 ㉓ 3995

동부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의 19
전화 ㉓ 1005

동대문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의 19
전화 ㉓ 1005

삼청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전화 ㉓ 3596

서부지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1
전화 ㉓ 1208

성북지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의 13
전화 ㉓ 0744

신촌지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7의 13
전화 ㉓ 4279

영등포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54의 15
전화 ㉓ 4663

녹번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 5의 21

인천지역 인천시 답동 37번지 송도 중·고등학교
옆
전화 ㉓ 9852

대전지역 대전시 대흥동 440의 1
전화 ㉓ 6273

남부지방부

대구지부 대구시 삼덕동 2가 24번지
전화 ㉓ 6659

부산지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번지
전화 ㉓ 7071

동구지부 부산시 동구 수정동 685의 10

동래지역 부산시 동래구 장전동 297의 13 ㉓ 1180

광주지부 광주시 충장로 4가 34번지
전화 ㉓ 2692

전주지역 전주시 경원동 1가 58번지
전화 2819

※ 지부의 주소 변경시 해당 지부장님은 즉시 편집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도 서 안 내

일 반 용

물문경.....150원
물문경(가죽표지).....1,200원
물문이란.....100원
효과있는 가르침을 위한 제언.....50원
찬송가.....50원

주 일 학 교 용

그리스도의 생애.....100원
기이한 업적(상권).....50원
기이한 업적(하권).....50원
말일성도란.....100원
복음의 실천.....100원
○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복음의 멧세지반).....150원
생활에서 본 회복된 교회의 원리.....150원
○ 성전중의 지도자(야고보반).....100원
○ 승영의 멧세지(요한반).....200원
○ 신약의 가르침(기초 교리반).....100원
주님의 멧세이지.....100원
주님의 멧세이지(교사 보조 교재).....100원
회복된 교회의 역사.....150원
이야기로 엮은 구약 성서.....150원

상 향 회 용

강력한 지도력을 통한 인격 강화..... 20원
봉사 이삭줍기반 공과.....100원
상향회 역원 지도서..... 50원
선택의 밤(봉이반 공과)..... 50원
장미반 공과.....150원
지도 원리..... 50원
○ 1968~1969년도 상호향상회 교재..... 미정

신 권 회 용

○ 불멸과 영생(21세 이상반)..... 미정
아론 신권회 지침서..... 20원
○ 인간과 하나님(21세 미만반).....100원
집사 고문 지도서.....150원
회복된 성교회.....100원

유년주일학교용

우리의 종교생활(상).....100원
우리의 종교생활(하).....100원
○ 주안에서 자라남.....100원
복음안에서 자라는 어린이.....150원
어린이 찬송가.....100원

○표는 1968년도와 1969년도에 사용되는 교재입니다.

□ 도서는 선교부 판매부나 각 지부의 지부장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리차드 엘. 이반스

진리의 말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바 남의 훈계를 구하는것 이외에 조심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남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훈계를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니 스트루브는「여러분은 어린 아이의 불평을 얼마나 자주 들어 줍니까? 여러분은 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대개 '뭘 원하니' 라며 생각도 없이 짜증을 토해 버리고 맙니다. 대개의 어린이들은 실제로 무엇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를 나누고 싶을 따름입니다.」 어린아이, 젊은이 그의 누구에게나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 줍시다. 우리는 성급한 대답을 받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려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는 '나 지금 바빠' 라고 흔히 말할까요? 어린 아이는 -여기에 잠깐있다가 딴 곳으로 가버리는- 햇빛과 같다는 사실을 왜 부모는 깨닫지 못할까요?」라고 어느 사려깊은 관찰자는 말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들어 주고, 참고, 속단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알려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다만 이야기하게 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 주는 사람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침착해지고 무사히 그들 자신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중에 제 의견을 말하거나 도무지 이야기하지 않거나 하면, 어떠한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주는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한번 저질은 잘못을 시정하는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게리 클리브랜드 마이어는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사랑많은 주여, 저를 보다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녀를 이해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이야기를 끈기있게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방해하거나 말대꾸하거나 반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만큼 그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잘못된 판단과, 너무 많은 실수와, 이야기를 들어 주기 위해 시간을 너무 내주지 않는 일 때문에, 조언은 주어 져야 할만큼 만족스런것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열쇠는 대화입니다. 내가 바쁜결 못보나라는 말은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준다는 것은 부모된 자의 각 마음속에 심어져야 되겠습니다.」고 어느 분은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왔었다는 느낌을 가질수 있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때 들어 줄 수 있다면!

이 말씀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서울중앙 방송국 제 2 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AFKN(미군 방송)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